



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 초대 장관 취임



◀ 정운천 장관

지난 2월 29일 정운천 초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공식 취임했다.

정 장관은 농어업과 농어업인을 지키고 보호하는 정책으로는 △직불제 확충 △재해보험 확대 △연금보험료 등 농어가 생활안정대책 강구 △농어가 악성부채 해소 △농자재가격 안정대책 추진 등을 강조했다.

또 창의 정책으로는 △시군단위 유통회사 설립 △품목별 국가대표조직 육성 △농식품 유통 고속도로 구축 △시장·군수중심의 현장농정체

제 구축 등 4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정 장관은 이어서 정책 운영의 4가지 기본원칙으로 △희망의 정책과 △긍정의 정책 △창조의 정책 △신뢰의 정책을 강조했다.

정학수 제1차관, 박덕배 제2차관 임명



▲ 정학수 제1차관



▲ 박덕배 제2차관

농림수산식품부의 제1차관에는 정학수 현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제2차관에는 박덕배 전 수산과학원장이 임명됐다.

정 차관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고창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 텍사스 A&M대에서 농업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시 21회로 농림부 공보관, 농업정책국장, 농촌개발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역임했다.

박 차관은 충남 서천 출신으로 서울 양정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해양학과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해양수산부 어업지원국장, 수산정책국장, 차관보를 역임했다.

김재수 기획조정실장, 정승 식품산업본부장, 배종하 수상정책실장 임명

정부는 2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에 김재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식품산업본부



▲ 김재수 실장



▲ 정 승 본부장



▲ 배종화 실장

장에 정승 농촌정책국장, 수산정책실장에 배종화 전 대통령 농어촌비서관을 각각 내정했다. 김 실장은 경북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1회로 공직에 진출해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 주미대사관 농무관, 농업연수원장을 역임하는 등 유통·식품·국제업무에 밝다. 정 본부장은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3회로 공직에 진출해 공보관, 농촌개발국장, 식량생산국장, 농업정책국장 등을 거친 농정통이다. 배 실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3회로 공직에 진출해 국제농업국장 재직시 한·미 FTA협상을 주도한 국제통이다.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에 김동환 양돈협회 회장 추대

전국농민단체협의회(이하 농단협)는 2월 2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을 새로운 수장으로 추대했다. 이에 따라 신임 김동환 회장은 앞으로 2년간 농단협을 이끌게 됐다. 한편, 농단협은



▲ 김동환 회장

홍준근 사무총장을

유임시키되 사무국은 양돈협회에 두기로 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에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추대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이 축산단체의 대표조직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수장으로 활동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9일 제2축산회관에서 08년도 제1차 대표자회의를 갖고, 회장으로 추대키로 결정하였다. 이승호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축단협이 명실공히 축산농가의 보호책 마련을 위해 축산정책의 비전과 대안을 만드는데 매진하겠다'며, '실무자회의 기능강화 및 축산단체간의 의견통합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축산현장에 필요한 정책대안들을 발굴, 대응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이승호 회장

한편, 본회 이준동 회장과 대한양돈협회 김동환 회장을 선임하고, 지난 4년간 축단협회장을 맡았던 남호경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임명하였다.

한국가금학회 춘계심포지움 오는 5월 16일 축산과학원에서 개최

한국가금학회(회장 이상진)가 지난 14일 대한양계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5월에 개최 예정인 춘계심포지움 개최건에 대해 축산과학원, 양계산학협력단과 공동주최로 축산과학원 대강당에서 '친환경 양계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오는



5월 16일(금)에 개최기로 하였으며, 내용은 친환경 축산정책을 비롯한 시설, 사양, 유통, 질병, 사례발표 등에 대해 분야별 강사 및 주제선정이 있었다. 기타 해외 학술활동 지원금 규정과 관련하여 이번 6월에 있을 세계가금학회 학술대회에 초록을 제출한 회원에 한해 참가비용 일부를 지원해주시기로 하였다.

(사)자조금연구원 자조금 발전정책 및 법개정 토론회 세미나



(사)한국자조금연구원(원장 박종수)은 2월 28일 aT센터 회의실에서 당년의 자조금 정책과 전 품목의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08년도 자조금 발전정책 및 법개정 토론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 1부는 '08년 농림부 자조금정책발표와 제 2부에서는 자조금법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현행 법규상 크게 자조금

의 공동설치 및 관리운용, 대의원회 역할 및 기능과 대의원 변경사항, 관리위원회, 지도감독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개선과제로 기존단체의 기능특화와 상호관계 정립, 연관부문의 협력증진 및 자조금제도 발전연구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제기됐다.

축산과학원 토종닭 인증기준 및 발전방안 공청회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원장 이상진)은 3월 6일 축산과학원 수원청사에서 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연수)와 공동으로 '토종닭 인증기준 및 발전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국내 토종닭 사육 및 유통실태(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이제영 양계팀장) △해외 토종닭 산업동향(한국토종닭협회 박근식 고문) △토종닭 인증 및 사육방법(축산과학원 기금과 강보석 연구관) △향후 토종닭 산업 발전방안(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국장) 등 4개 주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재래닭 복원 100% 완료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은 멸종 위기에 처해있



던 한국 고유의 품종 '재래닭'을 100% 복원했다고 밝혔다. 축산과학원은 닭 종자의 개발을 위하여 1992년부터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사육되어 오던 재래닭을 수집, 기초계를 조성하고 고유특성에 따른 순수계통을 육성하는 한편, 한 마리씩 개체관리를 해왔다. 이번에 복원 완료한 재래닭은 적갈색, 황갈색 및 흑색의 외모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콜라겐 성분이 많아 육질이 쫄깃쫄깃하고 닭고기의 풍미를 결정하는 메치오닌과 시스틴 등 황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제대로 된 닭고기 맛을 소비자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직접 가열식 폐사가축처리기' 시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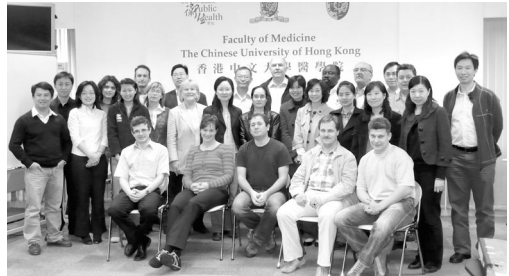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원장 이상진)은 3월 13일 천안에 위치한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에서 농장방역을 위한 폐사가축처리 세미나 및 제품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일반폐사가축의 효율적인 처리방법과 농장의 방역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폐사가축처리 현황 및 방역에 관한 세미나와 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직접 가열식 폐사가축처리기'의 시연회를 보였다. '직접 가열식 폐사가축처리기'는 각종 질병, 전염병 등에 감염돼 폐사한 가축을 고압스팀으로 가열하여 완전 멸균처리하는 동시에 진공 상태로 폐사한 가축의 수분을 제거해 폐사가축의 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폐사가축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비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아시아 최초 동물질병감시 전문강좌 참석



지난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홍콩중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개최된 "동물질병 감시의 현대적 접근법" 강좌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 역학조사과의 윤하정 박사가 참석하였다. 본 강좌는 수의공중보건학이 인류의 건강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전문기술 학습과 토론에 관하여 아시아 최초로 개최되는 것으로, 영국 런던대 왕립수의과대학 교수진과 홍콩중문대학이 공동기획 하였으며, 세계 각국에서 34명의 수의역학 전문가들이 참가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강좌 참석으로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수의역학 관련자와 국제 공동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기자간담회 개최



지난 4일 검역원 대강당 세미나실에서 강문일 원장 및 간부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역원의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검역원에서는 3 UDC(Up, Down, Change)의 강력추진을 통해 안전한 Clean Korea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발표한 중점 추진과제로는 3대 도약(Up)을 통해 동물전염병 종합방역기술 준비로 축산기반 확보, 국경검역 강화로 국민건강 보호, Pride 605에 따른 가치발로 내외부 만족도 향상 등을 목표로 두며, 3대 최소화(Down)를 통해서는 국가재난형 질병 발생예방 및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부정불량 축산물 생산 유통 최소화, 부패 제로 기관 유지 등을 목표로 정했다. 또한 3대 변화(Change)를 통해서는 원스톱 서비스 분야 확대, 축산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현장 문제 해결용 간이 검사법 개발 보급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물등급판정소

계란 품질향상을 위한 양계농가 컨설팅 실시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에서는 계란 품질향상을 위해서 '전자계란'을 활용, 파각란 발생원인을 찾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양계농가

컨설팅'을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에 '전자계란'을 도입하여 일부 농가를 대



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파각란 발생을 종전보다 53%(개선전 7.2% →개선 후 3.2%) 가량 줄여 동 컨설팅 사업이 매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한다.

(사)축산물HACCP기준원

한국소비자원 업무협력 MOU 체결



축산물HACCP기준원(원장 곽형근)은 지난 2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소장 신종익),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박용호),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한호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축산물HACCP기준원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물 위생업무 및 기술, 연구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와 전남대학교는 전문적인 축산위생업무 및 기술연구로 결과적으로 HACCP제도의 정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전한다.